

SK케미칼, 난치성 질환 치료제 기술 수출

SK케미칼이 글로벌 제약기업에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오스트레일리아 제약기업과 6억달러 상당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에 대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기술수출과 관련해 글로벌 제약기업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5월26일 밝혔다.

<화학저널 2009/05/27>